

데스크시각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요약하면 질문은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 작용, 지식 전달, 문제 해결,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Chat)GPT에게 ‘인공지능(AI)과 컴퓨터를 다루는 인간에게 왜 질문이 중요한가?’를 물었다. 그러자 챗GPT는 ‘지식확장과 학습’과 ‘문제해결과 결정지원’ 등 다섯 가지를 들려 이렇게 답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

김남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저자들은 신간 ‘트렌드 코리아 2024 (미래의창)’에서 새해 한국의 소비 풍경을 이끌 10대 키워드를 제시한다. 그중에서 유독 ‘호모 프롬프트’ (Homo Promptus)가 눈에 띈다. 아마도 2022년 11월 첫 등장한 챗GPT가 촉발시킨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와 밀접한 신조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 교수는 “프롬프트는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채널이자 방식”이라며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AI와 ‘티키타카’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질문하는 인간, ‘호모 프롬프트’의 등장

고 정의한다. 특히 “AI는 프롬프트 만큼만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거론하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생성형 AI는 다른 대답을 내놓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메타 인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찰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결국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인간만이, AI가 작업한 용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화룡점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뇌과학자 김대식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결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챗GPT와 사랑, 정의, 신(神), 죽음, 인류의 미래 등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해 펴낸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동아시아) 에필로그에서 ‘올바르게 질문하고 그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답을 생성하는 챗GPT. 기계가 알맞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질문하고 그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이야말로, 결국 미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될지도 모른다.”

전국 국어교사모임 연수국 교사 6명이 펴낸 ‘챗GPT 국어수업 (서해문집)’에서도 질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챗GPT를 수업에 활용하면 한 교사는 “이 도구의 효용은 ‘챗GPT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챗GPT 등장으로 이전과는 다른 (배움의) 근육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힘과 근육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국어수업이 가야할 방향이 아닐까”라고 밝힌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오던 글쓰기와 그림, 작곡 등 창작과 예술의 영역까지 침투했다. 실제로 2022년 8월, 생성형 AI가

그린 작품 ‘우주 오페라극장’이 미국 콜로라도 주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용자는 무려 900여 개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직접 무료 이미지 생성 AI인 ‘워튼(Writn) 4.0’에 “스키를 타는 로봇을 그려달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자 몇 초후 그럴싸한 4장의 그림이 완성됐다.

정교한 질문은 인문학에서 나와

챗GPT가 등장한지 1년 여가 지난 현재, ‘생성형 AI’는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자칫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커졌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지난 2005년 펴낸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0년 중반에야 달성할 것으로 예견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3년 이내’(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서 ‘5년 내’(제스 왓 앤비디아 CEO)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영역을 넘보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전문가들이 첫 손에 꼽는 것은 ‘질문’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지라도 인간의 ‘프롬프트’(명령어)가 중요하다는 교육현장에서 정교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 또한 질문의 원동력은 인문학의 바탕에서 나온다. 결국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철학 등 인문학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하루가 멀다하고 정신없이 변화하는 AI시대,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질문하는 인간, ‘호모 프롬프트’는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은폐칼럼

‘2050(년)당’의 필요성

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형적 인구 구조는 국가 규모 자체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20-60대 생산 인구에게 세금, 연금 부담, 건강 보험료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 데도 안타까운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인 국민의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모두 인구 문제 등 미래 한국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고민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예산이다. 부자(현재 세대)가 어려운 사람(미래 세대)을 착취하여 자기를 배만 불리겠다는 논리와 똑같은 현상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한국은 인구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등 어려운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파를 초월한 거국 내각이라도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최소한 20-30년 후를 대비하며 정치를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또 민주당이 그런 요구에 호응하여 중요한 사안은 협력하고, 또 경쟁을 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당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시점에서 양대 정당에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제3당이라도 나와서 미래 한국을 걱정하고 해법을 찾는 일을 선도해줘야 한다.

먼저 정의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들에게 주문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분열적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연합 정당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당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조건 없이 하나로 합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선 거연합을 하라. 더 영향력 있는 정당이 되어서 진보세력의 주요 관심사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환경·기후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빈부격차 해소 문제 등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신당을 만든다면 따로 보다는 함께 해보라. 제3당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합리적 보수와 중도 개혁 성향의 세력이 힘을 합해 국가적 난제를 풀겠다는 각오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보라. 진영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다음 인구 문제 등 한국 사회의 난제를 푸는 데 앞장서는 모습, 즉 ‘2050(년)당’의 모습을 보이면 틀림없이 의미 있는 숫자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무겁게 있는 제3당이 나와 정책 경쟁을 선도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통합된 진보 정당과 새로 출현할 중도개혁 정당이 꼭 성공하여 정치권의 메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1990년대 초 전남대 원로 교수 한 분이 중국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역사에 중국인들 앞에서 돈 자랑했던 때가 지금 말고 언제 또 있었느냐?” 그렇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번성할 시기를 살았다. 행운의 세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이 좋은 시절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형적인 인구 구조다. 올해 12월에 나온 몇 가지 우울한 신문 기사들을 소개하겠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인구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향후 한국은 중세 서유럽이 겪은 흑사병 창궐 수준의 인구 감소를 겪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멸할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세계 1위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2050년 성장률은 0%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50년 후 한국 인구는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

아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본바탕이여

이곳 능주 일대에서는 지식강 주변으로 형성된 넓은 들판으로 인해 논농사가 발달하였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넓은 들판을 묵숨줄로 여기며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들소리가 성했다.(이 지역에는 노래를 소리라고 표현한다.) 들소리는 논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남자들의 소리이다. 힘든 논농사를 지으면서 부른 ‘능주 들소리’는 잠으로 자랑하다. 말없이 흐르는 지식강을 그대로 닮은 듯 하다.

인근 도암면 도장리와 화순을 내평리에는 논농사도 많지만 밭농사가 더 많다. 논농사는 주로 남성들이 주축이 되지만 밭농사는 온전히 여인들의 몫이었다. 특히 밭농사와 관련된 가장 큰 일거리는 길쌈이었다. 밭에 무명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키워 가을에 무명솜을 따서 물레를 돌려 무명실을 만들고 베를 타서 무명천을 만드는 모든 과정의 지난한 노동은 온전히 여인들이 감당해야만 했다. 이렇게 힘든 노동의 과정 속에 나온 노래가 여인들의 흥이 터져서 타령인 길쌈노래다.

이러한 노래들과 우리 어머니들의 고단했던 노동의 삶을 잊지 않고 전승하기 위해 ‘내평리 길쌈노래보존회’를 만들고 해마다 전승 행사를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전남도 주최 전남민속예술축제에 나가 대상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전국민속예술 축제에 전남남도 대표로 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경주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개막 공연을 하면서 세계인의 지대한

관심 속에 화순과 내평리 마을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내평리 길쌈노래를 지난 겨울이 시작될 무렵 광주 전문문화관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을 했다. 이제는 꼬부랑 할매들이 다 되어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살다 보니 전문 공연장에서 번듯하게 공연을 하게 되었다며 오히려 우리 할매들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할매들은 인솔하여 가면서 나는 그랬다.

“잘 할라고 할 필요없이 우리 어머니들이 당시 길쌈하면서 불렀던 대로 하시면 되요.”

스물 다섯 분의 할매들이 들어서니 공연장이 꽉 찼다. 관객들 바로 앞에서 물레를 돌리고 다듬이질을 하고 베를 짜다. 이렇게 길쌈의 전 과정을 공연장에서 보여주면서 노래를 부르니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은 신기해했다. 어떤 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도 했다. 길쌈노래에 담긴 고단한 여인들의 삶을 공감했을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공연한 할매 몇 분의 인터뷰도 있었다.

선소리를 하시던 쉼매덕 할매(87)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본 바탕이여. 어디 더하고 빠지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화순군에서 관련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산이면서 공동체의 원형질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우리 어머니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내 건강하세요.

社說

‘친명팔이’ 극성 총선 여론조사 신뢰성 의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일부 예비후보들의 과도한 이재명 마케팅, 이른바 ‘친명팔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력을 넣으면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5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49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16명(32.6%)이 이재명 관련 직함을 대표 경력으로 명시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직함까지 포함하면 19명이나 된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친명팔이로 인해 언론사 여론조사가 발표 직전 취소되기도 했다. 광주 모 방송사가 진행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이재명 당 대표 이름이 들어간 경력 1개만 등록해 상대 후보측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시 경력 2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1개만 등록해도 제재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악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시 경력 표기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예비후보 경선에는 이런 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광산갑 파행이후 광주에서만 예비후보 4명이 특정 정치인 관련 대표 경력 1개만 선관위에 등록했다. 여론조사 파행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지غم부터라도 본 경선처럼 특정 정치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나 마찬가지로 후보명이나 된다. 인지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친명팔이로 인해 언론사 여론조사가 발표 직전 취소되기도 했다. 광주 모 방송사가 진행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이재명 당 대표 이름이 들어간 경력 1개만 등록해 상대 후보측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시 경력 2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 어려워도 복지시설에 온정 이어지길

광주·전남 복지시설이 장기화된 고물가고급리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설 운영자들은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연말 온정과 후원이 감소한 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와 가스요금 오르면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는 시설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광주시내에는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10곳에 420여 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다. 외부 후원이 줄어들자 시설들은 간식을 줄이고 난방 가동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보육시설 관계자는 한 끼 식비 기준 2700원을 맞추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간식을 줄였다.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고정돼 있다. 보육시설들은 넉넉하지 않은 지원금만으로 난방비 등 운영비와

간식 구입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충당하려 한다. 그렇지만 고물가고 고물가가 장기간 되고 있는데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시민을 상대로 기부부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기부에 관심이 없다’(43.4%)와 ‘경제적 여유가 없다’(41.0%)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고물가고물가가 경제 상황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온정과 후원이 더욱 절실하다.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광주·전남 복지시설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축된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 서로 어렵더라도 십시일반(十時一飯)으로 온정을 모아 아동 및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 운영에 승용이 트이도록 해야 한다. 복지시설들도 온라인 기부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후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면 좋겠다.

無等鼓

화로(火爐)에 고기를 구워내는 고깃집이 다시 뜨고 있다. 이러한 고깃집의 인기는 저렴한 비용에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화로에 고기를 굽는다는 자체에 있지 않나 싶다. 예스러운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에 대한 향수에 더해 고소한 고기의 맛이 어우러지면 없던 식욕도 살아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숯불을 담아놓는 그릇인 화로는 난로의 등장과 같이 나무를 베어다 동글게 기 대놓고 지피던 모닥불에서 나온 것 같다. 그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화로(火爐)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를 보이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동식 철제 화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이 어디에 있던 성냥이나 라이터를 비롯해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는 물론 기초 생활물자조차 공급했던 시절, 화로는 가정의 ‘작은 태양’이었다. 아침 일찍 불을 지핀 아궁이에서 화로에 불씨를 모으면 타고 남은 재로 덮어 잘 다독거리고 오랫동안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화로에 인두를 뭍었다가 동정(웃기 위에 조בות하게 덧꾸미는 흰

항걸, 오늘날 옷의 목 부분, 칼라)의 다듬이질을 했다. 또 늦양푼에 영긴 조정도 녹이고, 더러는 부스럼에 붙이는 고약을 녹게 했다.

이처럼 화로는 언제나 따뜻한 불씨를 안고 우리의 삶을 담혀 주던 도구로 세대를 대물림해 따스함을 제공했고, 가족 간 화목한 정(情)을 일깨워주던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화로는 1950년대 중반 석유 보급과 성냥의 대중화, 석유, 석탄 등 연료의 혁신에 따른 난방기구의 발달 등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초 농촌 지역까지 전기가 보급되면서 하나 둘 사라져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이제 고깃집에서나마 외외의 쓰임새로 눈길을 사로잡는 화로 소식을 접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다만, 겨울밤 질화로에 밥을 구워 손자 입에 넣어 주시던 할아버지 생각과 함께 몸 녹일 난로 하나 없이 차가운 골방에 홀로 밤을 지새우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니 마음 한 켠이 찡하다.

/김대성 제2서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책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